

## 제15장

### 여섯째 환상: 큰 성 바벨론의 멸망(17:1-19:10)

여섯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환상이다. 이 환상은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을 멸망시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즉 세상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17:1-19:10),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두 짐승의 멸망(19:11-21), 사단을 상징하는 용의 멸망(20:1-10), 그리고 용과 짐승을 따르는 모든 불신자들의 멸망(20:11-15)에 대해 이야기한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멸망이 처음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두 짐승, 그 다음에는 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용과 짐승을 따르는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1.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일반적 묘사(17장)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는 요한에게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1 절)이라고 선포한다. 음녀는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것은 음녀의 멸망에 대한 선포가 앞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반복적인 설명인 것을 알 수 있다. 왜 음녀를 바벨론으로 부르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좇을 때마다 ‘너희가 간음했다’라고 경고하셨다. 성경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따르는 자들을 ‘음녀’, ‘창녀’, ‘간음한 자’, ‘우상 숭배자’라고 부른다. 음녀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큰 성 바벨론도 음녀와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존재들이다. 이런 점에서 음녀는 큰 성 바벨론과 동일한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18 절은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18)고 묘사함으로써 음녀가 바벨론인 것을 입증해 준다. 또한 음녀와 바벨론이 동일한 옷과 장식품으로 치장하였다는 사실도 이 둘은 동일한 세상인 것을 보여 준다.

그 여자는 자주 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4 절)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18:16)

음녀가 앉아 있는 ‘물’(1 절)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15 절)이다. 여기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은 ‘세상 열방’을 의미한다. 이는 음녀가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해 준다. 음녀가 입고 있는 ‘붉은 옷과 꾸민 금과 보석과 진주’는 ‘세상의 사치와 영광과 부와 힘’을 상징한다. 즉 음녀는 힘과 부와 사치로 세상을 유혹하여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가 되게 한다(2 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도덕한 음녀를 심판하시는 이유이다. 세상을 유혹하여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음녀는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었다(3 절). 붉은 빛 짐승은 13 장의 바다에서 나온 동일한 짐승을 말하며, ‘국가권력’이나 ‘세상 제도’를 상징한다. 이 짐승도 음녀와 같이 붉은 색을 하고 있었다. 이는 짐승도 음녀와 같이 국가나 세상의 가치나 부와 힘을 붙잡고 살라고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인 것을 말해 준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그 둘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음녀는 부와 화려함으로 세상을 유혹하는 ‘경제적 세력’을 상징한다면, 짐승은 정부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라고 미혹하는 ‘정치적인 세력’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음녀는 정치적 힘을 필요로 하며, 짐승은 경제적 부를 필요로 하는 매우 밀접한 관계인 것을 보여 준다.

천사는 짐승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한다. 짐승은 “일곱 머리와 열 뿔”(7 절)을 가지고 있는데, 일곱 머리는 ‘일곱 산’과 ‘일곱 왕’이라고 말한다(9-10 절). 일곱 산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어떤 이들은 일곱 산은 로마 제국이라고 주장한다. 로마는 일곱 산 위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곱 산을 역사적인 로마 제국만을 지칭하는 것은 좀 빈약한 해석이다. 성경에서 ‘산’은 ‘세력, 힘, 통치’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렘 51:25)

그러므로 짐승이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산을 일곱 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곱이 ‘완전수’라는 점에서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등장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인 것을 말해 준다.

일곱 산은 ‘일곱 왕’으로도 불리운다(10 절). 일곱 왕 또한 로마 제국부터 세상 종말까지 세상에 있을 모든 제국이나 통치자를 상징한다. ‘여덟째 왕을 일곱 왕 중에 속한 자’(11 절)라고 소개하는 것은 이 짐승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세상 종말에 나타날 반기독교적인 제국이나 통치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짐승은 또한 열 뿔을 가지고 있었다. ‘10’은 완전수이며, ‘뿔’은 통상적으로 ‘권세’를 상징한다. 그러므로 짐승이 열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모든 시대의 세상의 왕들과 정부들의 권세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이유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은 모든 시대에 걸쳐 계속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미혹하는 세상의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다.

짐승이 이러한 악의 세력들을 동반하여 어린 양 예수님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지만, 결국 전쟁에 패배하게 된다(14 절). 짐승이 패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에 의한 것으로서 음녀와 짐승 사이에 분쟁을 일으켜 서로 미워하고 죽이게 함으로써 멸망하게 된다.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17:16)

어떻게 음녀와 짐승 사이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음녀와 짐승은 서로 상호 협력하는 운명 공동체이지만, 어떤 때에는 짐승이 음녀를 공격하기도 하고, 음녀가 짐승을 미워도 하는 상호 멸망시키는 관계가 되기도 한다(10 절). 짐승과 음녀의 관계를 경제와 정치로 비유한다면, 경제계를 상징하는 음녀와 정치계를 상징하는 짐승은 평상시에는 상호 협력하는 관계이지만, 어떤 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짓밟는 관계로 변하기도 한다. 이것은 사단과 악의 이기적이며 파괴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 준다.

물론 이러한 대적 관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국가나 통지자의 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세상의 어떠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굳건히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야 할 것이다.

## 2.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18 장)

18 장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바벨론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도시이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고 각종 향목과 각종 사아 그릇이고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고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12-13 절)

위에 소개되는 품목들은 모두 바벨론이 취급하고 있는 것들로서, 오늘날 고급 백화점에 전열된 품목들과도 같다. 당시 바벨론을 상징하는 로마는 세계 전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을 다 수집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부와 사치가 극에 달한 나라였다. 열거된 품목들 중 제일 마지막 품목으로 ‘사람의 영혼들’이 소개되는데, 이들은 ‘노예들’을 의미한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막대한 노예 시장을 갖고 있었다. 역사에 따르면, 로마 제국의 인구 중 노예가 4분의 3 이었다는데, 이는 로마가 얼마나 많은 노예를 거느리며 상품화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사치와 부로 말미암아 각종 더럽고 부패한 도시로 타락하고 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2-3 절)

그리고 그 결과로, 부도덕하고 부패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된다(10 절). 이때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 보던 모든 자들은 통곡하며 울부짖는다. 즉 바벨론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유익을 누렸던 땅의 왕들과 바벨론과의 무역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상인들과 해상 무역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선장들, 선인들, 선객들은 모두 통곡하며 애통해 한다(9-19 절).

그런데 여기서 왕들의 통곡은 미래형으로, 상고들의 통곡은 현재형으로, 배 부리는 자들의 통곡은 과거형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왕과 상고들과 배부리는 자들의 통곡을 미래형과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묘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시대에 걸쳐 세상을 계속 심판해 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모두 시대마다 힘과 부와 힘의 원리를 추구하는 자들은 현재는 물론 다가올 미래에도 심판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기에 속히 그 곳에서 나와 더 이상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것을 끊임없이 경고해 오고 있음을 보여 준다(4 절).

여섯 째 환상은 바벨론이 보다 더 철저히 파괴되는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된다(21 절). 요한은 큰 돌이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볼 수 없는 것처럼, 바벨론도 이같이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않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된다. 그리고 바벨론 멸망으로 인해 자기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만들어 놓은 세상의 부와 화려한 ‘음악, 산업, 빛, 사람, 생명’ 등이 모두 한 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부로 인한 교만 때문이다. 인간의 최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영화롭게 하며 이기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탐하며 살고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은 만국을 우상

승배하도록 미혹하였을 뿐만 아니라(23 절), 교회를 대적하며 박해하는 일에도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24 절)는 ‘세상의 모든 종류의 박해’를 상징한다. 이와 같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일과 부도덕하고 부패한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

### 3. 바벨론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찬가(19:1-10)

바벨론의 처참한 멸망을 제시한 환상은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이 된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환상으로 바뀐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와 네 생물과 24 장로,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네 번이나 반복적으로 ‘할렐루야’를 부르며,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여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할렐루야는 부패한 바벨론 심판의 정당성에 대한 찬양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정당성은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 음행으로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리게 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 심판의 영원성에 대한 찬양이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3 절)는 표현은 불에 타 공중으로 다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바벨론의 멸망을 시각적으로 보여 주는 그림이다. 이러한 바벨론의 영원한 멸망은 이 땅에서 잠시 악한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일시적인 교회의 고난과 매우 대조가 된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을 받으나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악한 세상은 이 땅에서 잠시 권세와 부귀와 영광을 누리지만 얼마 후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지옥 못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과 신음 속에 지내게 된다.

반면, 세 번째와 네 번째 할렐루야는 바벨론의 심판과는 달리 어린 양의 신부가 받을 영원한 구원에 대한 찬양이다(7-9 절). 교회는 마지막 날에 혼인 예복(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혼인을 한 후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감격의 찬양을 한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교회는 예수님과 혼인한 것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하늘에서 또다시 예수님과 혼인식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러한 의문점은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된다.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따르면, 먼저 혼인식을 갖기 전에 약혼식을 가지며 그 후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후에 최종적으로 혼인식을 갖게 된다. 이스라엘은 약혼식은 언약 관계를 통해 법적으로 정식 남편과 아내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혼인 날에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 혼인식을 하고 일주일 간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혼인 풍습에 근거하여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약혼을 한 상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교회는 약혼이라는 언약 관계를 통해 법적으로 예수님과 정식 부부의 관계가 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신랑되는 예수님은 신부되는 교회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려가 혼인식을 가진 후, 교회는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혼인 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